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 진짜 길잡이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 깨달음과 믿음에 대해서

**문** 저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문외한인데 제가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로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종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스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주인공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깨닫는다는 것과 자기 자신의 주인공을 믿는 것과는 같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깨달음은 본래의 씨앗에 싹을 틔우는 것

**답** 우리에게 씨가 있는데 그 싹을 틔우지 못했다면 그 싹을 틔우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씨는 본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현실의 내 마음이 과거의 마음과 통일해 가지고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 싹을 틔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싹을 틔우기 위해서 생사윤회가 들어 아니다, 크고 작은 게 들어 아니다, 참나 생활이 공해서 돌아가고 있는, 공한 주인공을 그대로 배우는 한마음이에요. 한마음은 내려놓는 게 한 마음이에요, 어떤 걸 이롭게 해서 나라고 할 수 없기에 공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한 것이니까 우리가 깨달으려면 혹독하게 물도 쥐야 하고 흙도 골라 쥐야 거기에 씨가 싹이 피지 않겠습니까? 마른 땅에서 마른 씨가 어떻게 싹을 틔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냐가 그런 과정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깐 말합니다. 그래서 화두를 받아 가지고도 '이 뭐고' 하고선 그냥 자기가 지금 움직거리고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지식과 학식이 충분히 들어갔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이게 뭐고 하고 10년을 있어 봐도 그것은 싹이 트이지 않습니다. 해결이 돼야 하는데 해결이 피지를 않습니다. 싹을 틔우려면 그대로 물을 주고 흙을 골라 주고 그러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트이면 그때부터 인제 기르는 거죠.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다 또는 주인공에다 맡겨 놓는다는 언어마저도 붙어서는 아니 됩니다.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낡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 다면 어떠한 쇠든 어떠한 쇠 부스러기든 다 용광로에 집어넣는 작업만 한다면, 그냥 그 작업만 하면 돼요. 뒤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작업만 하면 자동적으로 쇠가 다시 생선이 돼서 나가니까요. 그 쇠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을 할 테니까요.

수박을 갖다 놓고 말합니다. 수박 거죽은 파랗고 그 다음 속은 하얗고 가운데는 빨갛고 씨가 있고, 이런 이론을 벌여 놓고 이론을 배우시겠습니까, 수박을 딱 잘라서 그냥 그 맛을 보시겠습니까? 어떤 거든지 오는 대로, 내 앞에 오는 것대로 용도에 따라서 그냥 잘라서 먹는 겁니다. 그럼 맛을 벌써 알죠. '이건 맛이 있구나. 이걸 먹었구나.' 맛을 알면 그 씨는 내년 걱정은 하듯 할 게 없죠.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내 속에 수박씨를 놔 두어도 바깥에서 수박을 찾겠느냐는 겁니다.

수박씨는 바로 각자 나한테 있는 겁니다. 수박이 익으려면 씨가 있어야지 썩까지 끊어 버린다면 수박이 익겠습니까?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선적으로 내 몸과 마음과 가정, 이 모두를 해 나가는 데만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주의 탐험도 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하나 실험을 좀 해 보신다면 알게 될 일입니다.

### 영식독에 대해서

**문** 무상계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사대 지수화중 몸통이가 흩어지는 것이고 실지로는 영식독이라, 실지로 그 신령한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이 죽는다는 그 말도 역시 환상 치우친 말이라고 느낍니다. 본래 몸이 허공이기 때문에 뭐 죽는다 그런 자리가 전혀 볼지 않는다고, 몸통이라고 해도 몸통이라는 생각을 놓고 죽는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본래 없다면 '몸은 흩어져도 영식은 독로하다. 신령한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 자체가 오히려 치우친 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르침 주십시오.

### 꽃 피었다 저도 나무는 살아있듯 생사가 본래 없어

**답** 한때 꽃이 피었다가 꽃이 시들지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꽃이 피었다가 시들고 꽃이 피었다 시들 뿐이지 나무가 죽는 건 아니죠? 이파리다 꽃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야단법석이지 마는 꽃이 시들었다고 해서, 꽃이 떨어졌다고 해서 나무가 시들어 죽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육신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원점에서 다시 꽃이 피듯이 생신이 되니 이 몸통이가 영원하다고 볼 수 있지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몸통이가 본래 생겨난 바가 없기 때문에 죽을 것이 없다 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불이 켜졌다가 없기 때문에 꺼진다도 없다고요. 그럼 생사에 대해서 '우리가 산다, 살아온 게 없기 때문에 죽어 갈 게 없다.' 이거를 대치해서 봐라 이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이 자리, 죽어 가는 것도 이 자리, 이 자리를 한데 합쳐서

그것이 약 조건이든 선의 조건이든 인연에 따라서 내 앞에 온 것이니까 나는 바로 배 위의 선장이 다 이겁니다. 내 한생각에 모든 마음들은 따를 것이다. 그러면 한마음이다 이겁니다. 한마음의 고정된 관념으로서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에 의해서 참나참나 돌아가니 이것은 그 선장 하나마저도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갖은 각색으로 나올 때 여러분은 지금 고정되게 살아있지 않습니다. 곁어올 때 뒷발자취가 없듯이, 금방 사랑하다가도 사랑을 뺄까치고 일보러 가듯이, 일을 금방 뺄까치고 또 사랑하듯이 이렇게 자식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순간순간 만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옮겨 놓고 저렇게 옮겨 놓고, 시발점도 종점도 없이 간다 온다도 없이 그냥 이렇게 여여하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죽는다 산다는 생사에도 끄달리지 마세요.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인이 죽어 가서 천도 좀 시켜 달라고 하니가 '본래 살아온 게 없다면 죽을 것도 없거니와...' 하고선 그냥 가거든요. 그러나 얼마나 천도해 달라고 한 사람이 무색하겠습니까마는 그거는 그 즉시에 요리가 된 것이고 그 즉시에 천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물질 본위만 알지 보이지 않는 50%의 그 영향력을 모르고 사시기 때문에 자유권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서쪽으로 가면 나쁘니 이사 가지 마라, 부적을 가져라, 무슨 고사물

리는 항상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다 산다도 없습니다. 나무 이파리로 친다면 나무 이파리가 낙엽이 쳐서 떨어졌다고 해서 나무가 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나무가 흙에 가라 서 자기 뿌리를 못 보듯이 사람도 천차만별의 속 입수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참자기를 못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근본 뿌리입니다.

### 불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문** 안병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군에 입대해서 군법당을 다니다가 신고대에서 수계를 받았습시다. 그런데 수계철을 보니 불명이 나와 있더군요. 불명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건지 궁금합니다. 불명에 담긴 뜻이 현재 나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 있어 부족한 점을 앞으로 더 공부해서 채우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계를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실천하는게 문제

**답** 계를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실천을 하는 게 문제죠. 계율뿐만이 아니라 보시를 하

모습을 타고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리를 알았다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 부처님 법을 올바르게 알려면...

**문**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부처님 법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인지요?

### 우주 그대로가 佛 모든 작용이 敎 "한생각 잘지니고 믿고 맡겨라"

**답** 불교라 하면 그저 스님네들만 가진 줄 알지 마세요. 이 세상천지가 다 불교예요. 생명 가진 거는 다. 지수화중도 생명을 가졌으니까 다 불(佛)이구요. 그래서 불, 불, 불! 천체가 생명 가진 거는 불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불성 없는 게 없다 이런 말이죠.

불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 불성이 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뜻으로 통하고, 말로 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은 세계가, 아니 우주 삼라만상이, 우주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 현재 이것이 그냥 돌아가는 그 자체를 우주라고 한다면 '삼천대천세계의 우주 천하' 이렇게 할 수 있죠. 우주 천하! 그것이 한생각에 한 참나에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한 참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빛보다 더 빨리 돌아간다고 그러죠. 또 빛은 가다가도 하차 할 수가 있지만, 참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땅 속이나 천지 어디든 깊어서 못 간다, 넓어서 못 간다, 높아서 못 간다고 들어요. 과거로도 돌아갔다가 미래로도 갔다 현재로도 왔다, 마음대로 자유자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뜻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 그렇더라도 하고만 있어도, 요다음에 나올 때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 하는 것도 자기가 자유자재할 수 있죠. 정말 몸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차적이고, 일차적으로는 몸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나와서 어떠한 소임을 맡느냐. 그리고 그 소임을 맡아서 얼마만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먹여 살릴 수 있고, 얼마만큼 사람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모든 생명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반드시 시킬 바라고, 또 만백성을 다 거느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거쳐야... 그렇게 해도 부처님이죠, 뭐, 꼭 머리만 깎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 이라는 것도 과거로 부터 지어 놓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예요. 자기가 지어 놨기 때문에 나쁘든 좋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뿔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 요다음에 또 이어지지 않아요. 자기를 이는 사람 같으면 잘 리드해서 통글게 나갈 수 있죠. 그리고 그런 힘이 있다면 백성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하지않죠, 그 힘이 있다면.

'아주 착을 보라' 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지요, '번뇌를 끊어라' 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대로 우리가 더하고 덜하고 없이 그냥 여여해서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굴러가는 수레와 같다. 그 수레에는 바로 심봉이, 주장자가 그 속에 빠져서 있어서 굴러가는 거다. 그냥 굴러가는 거다. 그리고 대치를 하려면 심봉을 믿고 거기가 다 놓게 되면 스스로 굴러서 다 재성이 되고 또 일들이 타협적으로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심성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인간이라면 개개인의 원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가다 모든 것을 놓으면 그 한마음에서, 한생각에 의해서, 여기서 바로 입지로 화해서 분자로 다 나누어져서 모두 각기 자기 역할을 하죠. 개가 돼, 짐에 낫선 사람이 어떤 짐승? 그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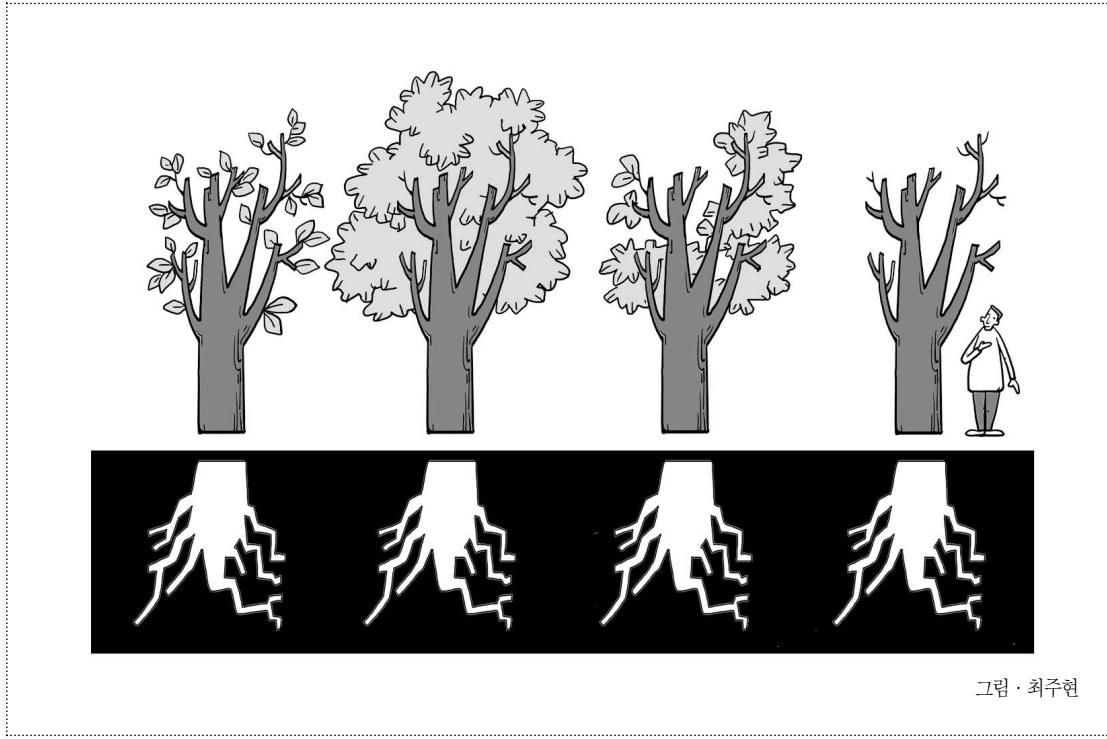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한번 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딱쳐오는 그 모두가 내가 죽어 가고 아프고, 병신이 되고 가난하고, 이러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감수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했으니까 그저 죽어야 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왜 죽어야 하느냐. 그렇다고 육신이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죽어야 나를 볼 수 있느냐라. 또 너는 너를 봤기 때문에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지. 너로 하여금 나를 보는 거지 너가 없다면 나를 볼 수 없느냐라. 내가 없다면, 네 자체의 주장자가 없다면 나를 똑똑히 볼 수가 없지.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네 주장자 네 주장자가 따로 없느냐라.' 하고요. 여러분의 그 진짜 길잡이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체가 어떻게 해야만이 고(高)라는 업보라는 그 누명을 벗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흔들리고 속고 이리저리 마시고 내가 가고 싶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떠한 자 갈밭이라도, 어떠한 가시밭이라도, 어떠한 낭떠러지라도 서슴없이 밟을 때에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야 합니다. 그런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나로 인해서 모든 걸 알았고, 내 몸속에 있는 인연에 따라서 모두 회전을 하고 있는데

지내라, 처러 놓고 제사를 크게 지내라 이라는 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데 속는다면 한시도 벗어날 길이 없을 겁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갈 것이요, 내가 이길 싶으면 좋겠다 했으면 그계 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이예요. 내가 집을 짓고 싶을 때에 거기 지으면 그냥 부처님의 법이예요. 내가 어디 걸렀다 안 걸렀다 이런 것을 논외하지 마세요.

아주 고귀한 보배 속에서 자기 마음이 나오는데, 참나참나 생각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법음이 아닐까요? 영원한 생명은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요. 몸을 움직여버렸다 하면 화신인데 모든 부처가 일체제불과 중생이 다 이러한 한마음 속에 들었거늘 여러분은 만날 거지 부처님 앞에 갖다 놓고, 부처님 한 분 아니라 수많은 데다 갖다가 놓고 빌어만 자식과 남편과 부모가 잘되는 줄 아는 그러한 소치는 정말 그 법을 모르고 죄를 덮어쓰는 일입니다. 덮어써줘 주지도 말아야 하고 덮어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가량일과 같은 인간의 이 몸통이를 가지고, 우리가 가을에 낙엽이 쳐서 떨어진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석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영원히 살아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만날 불이 들어와서 밝아 있다면 불이 꺼졌다 켜졌다 이런 언어도 볼지 않는 겁니다. 우

는 것도 공심으로서 무주상 보시를 한다. 또 생명을 나와 같이 생각한다. 모든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뒷받이기로 말하자면 '남을 괴롭히지 말라. 남을 섬섬하게 하지 말라.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 더도 덜도 말고 나와 같이만 생각하라.' 이런 것을 실천하는 데 모기가 있는 겁니다. 범명을 어떻게 받았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 진실된 실천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글자로 이름만 불러서 한 게 아니라 마음의 뿌리와 더불어 결부가 돼서 한 거니까 일체제불의 마음과 한마음으로서 결부가 되는 거고 일체 만물 만생과도 더불어 같이 결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귀중하다는 겁니다. 또 그 이름을 안 받았더라도, 오계를 안 받았더라도 우리가 본래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하고 가시는 분들은 그걸 안 받았어도 받은 거 이상 가계 되죠. 물론 받은 게 더 낫지만 말입니다. 여러 눈 아닌 눈, 손 아닌 손, 귀 아닌 귀, 몸 아닌 몸이 한데 어우러져서 향을 이뤄 드리니까요.

우리는 한 칠 살다가 한 칠 모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다시 진화하고 변화해서 다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상세계로 차원이 주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 한 철 날 때 부지런히 공부해서 깨달아야

29면에서 계속

게 찾는 거와 같이 자기한테 결부된 사람 앞에서는 다 조철을 해요. 다 그렇게 마음의 자기 주인이 신하다 주인이다 할 게 없이 평등한 마음에서 분자가 될 때는, 바로 거기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아축도 되고 아미타도 되고 미륵도 되고, 용신도 되고 지신도 되고 뭐, 관세음도 되고 칠성도 되고 지장도 되고, 아니 되는 게 없이 그렇게 분배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원자에서 나가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또 다시 들어오면 그냥 원자일 뿐이죠. 그래서 깨내도 풀지 않고 날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건 마음의 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몸이 있을 때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넓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사는 요 안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안은 거기가 다 말기고 더붙어 넓게 좀 보시고 사세요. 그런다면 우리가 어느 뎡가는 '아하, 이게 이런 거로구나. 마음은 항상 채가 없다고 하더니 이 마음 하나가 우주를 덮고도 남는구나.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주먹으로 치고, 땅을 내려다보고 주먹으로 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울다가 웃다가 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육신은 언제나 병이 들고 죽고 하지만, 그 육은 자기 시자일 뿐이죠 주인이 떠나면 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나오고, 또 돌아가고 또 나오고 이러한 거죠. 틀과 흙, 바람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울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불이 일어나고 은기가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가 생겼고 우주 만물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저 살았다 하면 죽었고 죽었다 하면 살았으니, 이거는 이렇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영원토록 그대로 풀려가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작아 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러죠. 잘 못살기도 하고 잘살기도 하고요. 우리는 지금 영화배우들이 배역을 맡아서 그대로 배우 노릇을 하는 거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누구의 뜻으로 돌릴까요? 이 엄청난 일이 왜 생겼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나 그러지만 자기한테 다 감겨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오신룡 중의 속명룡이 바로 여러분의 컴퓨터라고 볼 수 있어요. 자동적인 늑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스스로 감겨 있으니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면 바로, 수염이 나지 않았는데도 수염이 길어서 붉게 익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거를 알면 우리는 만 가지 천 가지 다 작용할 수 있는 거니까, 빨리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요런 말을 했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부처님 경전에 잘나잘나 나뉜다는 소리는 있어도, 공했



그림 · 최주현

다는 소리는 있어도, 고정된 게 없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고정된 게 없다! 보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 없고, 우리 이 한 덩어리가,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렇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세울 것도 없다, 나를 내놓을 것도 없다, 내가 했다고 할 것도 없다 그럴 때, 그게 정녕고 알아졌을 때 스스로 일을 하면서도 그냥 놓고 가고, 뭐 놓고 가려고 해서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놔진단 얘기도, 그냥 믿으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해도 일을 하고, 안에서도 일을 하고 바깥에서도 일을 하고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도 부러운 게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부러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좀더 벗어나려면 마음공부 열심히 해야죠. 신도님들 외에 탄 분들 가만히 보면 기복으로 찾아서 그냥, 노래하는 걸 봐도 그렇고, 기

도드리는 걸 봐도 그렇고, 염불하는 걸 봐도 그렇고 아주 그냥 다 그래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는 요만한 등잔을 쫓 쫓마다 놓고선 거기가 표리표해서 붙이고요. 참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세상에 저렇게 눈 떴어 먹고 또 때 먹고, 하하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부처님은 자비하게도 하시지.' 뼈다귀를 요 발가락까지도 고아서 먹어도 그냥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 아이구 참, 별나게 해 먹어도, 껌데기를 벗겨 먹어도 가만있고, 뼈다귀를 고아 먹어도 가만있고, 뭐 살을 떼면 또 살이 붙고, 또 떼면 또 살이 붙고 이렇지 아니, 영구히 떼어 먹어도 아야 다 못 떼어 먹을 겁니다. 그러니 별의별 짓을 다 하려고 하는데, 불법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법이 완전히 설 수도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미신이 될 수도 있고 구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못났든 잘났든 한생각을 그냥 잘 내세요. 이 공부 한다고 해서 벼락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앞가림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앞가림도 하게 해 주지, 공부하게도 해 주지, 그저 마음 착하게 살도록 하고 세세생생에 이어지게 해 주지, 자기 원소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려면...

**문** 진실하게 구해야 하고 진실하게 깨우쳐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진정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으니 모든 걸 들로 보지 말고 내 뜻으로 돌리라

**답** 이 세상 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다 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에 가면 싱겁고 좋죠? 그러니 물은 말없이 날려 물같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을 볼 때에 꽃도 나같이 살라고 하는 겁니다. 모질게 살아난 풀뿌리를 봤을 때도 나를 보고서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체 만물은 다 나같이 살라 하니 내 스승 아님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모로 봐서 지극하게 믿고, 믿는 것을 바깥으로 믿지 말고 안으로 믿을 때에, 진실하게 믿고 놓는 작업을 할 때에, 맡겨 놓는 작업을 할 때에 일체 만물이 다 그 속에서 나오고 드는 것이니까 그 속에서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만 진실하게 구하

는 법도 나오고 진실하게 깨닫는 도리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인공을 찾다가도 어떠한 일이 올도에 따라서 부닥치면 안으로 놓기 이전에 바깥으로 끄달리고들 하십니다. 안으로부터인데 말입니다.

안에도 물을 쥐야 바깥의 나무들이 잘 자라는 데 말은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주인공에 놓는다고 하면서도 행은 그렇지 못합니다. 행과 믿음과 구함이 진실해야만 하는데 말이죠.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으니 모든 걸 들로 보지 말고 내 뜻으로 돌리고, 나한테서만이 이끌어 줌이 나온다고 생각할 때 모든 해결은 그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증득하게 해 주는 것도 그 속에서만 깨달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철 나왔다가 부닥침이 없다면 뭘 배울 게 있었습니까? 한 철 날 때에 부지런히 해서 깨달아야만 오다를 생애... 아니, 나고 들고 하기 이전에, 생하고 멸하고 하기 이전에, 내가 자유스럽게 보고 자유스럽게 듣고 자유스럽게 남을 알고 자유스럽게 어디서 온 걸 알고 자유스럽게 오고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자유스럽게 내가 직접 주기도 하고 먹기도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가 된다면 스스로 법신이 되고 스스로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천백억화신이 됩니다.

바빠서 절에 못 가고, 주인공 찾는 거니까 집에 서 해도 된다고 해 가지고 잠 못드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왜 교수 노릇을 하면서도 자기네 아들 딸들을 학교로 보냅니까? 내 집 아이가 수술을 꼭 받아야 하는데 왜 남의 의사한테 맡깁니까? 내 집 아이를 내가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그 마음이, 남은 나와 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해도 괜찮잖나, 자식은 내 자식이라는 그 착에 의해서 수술하는 칼을 못 대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행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무조건 남을 이익하게 한다면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온다는 그 점을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서든 진실하게 마음을 내야 합니다.

##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오"

###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방,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 영험도량

수년간 광공산 입산 용맹정진 기도로써 약사여래부처님의 영험과 가피력을 증명하신 無有心佛(무유심불) 불토사 큰 스님께서 (고통·육체·슬픔·마음·신경·정신) 세계의 고뇌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불치성 질환 무병과 업장 및 전생문제 등을 무유심불 약사여래부처님의 영험 가피로서 큰 스님의 원력과 스님들의 지극한 기도발원과 극진한 지도로 본인 각자의 기도정진으로 극복 치유합니다.

無有心佛 약사여래기도도량

## 불토사

연락처 : 종무소 0331343-0103(숙식가능)  
전 송 0331344-0406  
주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을 반곡리  
오시는길 : 중앙고속도로 횡성 IC에서 10분거리

## 승광불교전통미술원

- 불 상
- 탕 화
- 개 금
- 원 형 조각
- 불 사 상 담
- 천불 삼천불
- 불 교 용 품

귀의 삼보 하옵고....  
대덕 큰 스님의 성원으로 불교미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랍니다

전 화 02-491-5336, 02-494-7478  
공 방 031-595-6557, 031-595-6558  
휴대폰 011-226-5336  
e-mail : 0112265336@nate.com  
목 우 손 등 술 합장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 제작이 간편한 등
- ★ 아외장염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 ★ 경제적인 가격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 : 016-552-9360